

## 위성미 女그린 정상에 서다

호쾌한 장타 신들린 퍼팅  
LPGA 캐나다 오픈 우승  
2위 신지애 상금랭킹 1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의 흥행 카드 위성미(21·나이키골프)가 첫 우승 뒤 9개월만에 캐나다 여자오픈에서 우승했다.

위성미는 30일(한국시간)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의 세인트 찰스 골프장(파72·657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호쾌한 장타로 페어웨이를 갈랐고 먼 거리 퍼트를 속속 홀에 집어 넣으며 2언더파 70타를 쳐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추격자들을 3타차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3라운드 때 신지애(22·미래에셋)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나흘 내내 리더보드 맨 윗줄을 지킨 위성미는 지난해 11월 멕시코에서 열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한 이후 LPGA 투어 두번째 우승컵을 캐나다에서 들어올렸다. 상금은 33만7500달러.

위성미와 나흘 동안 플레이를 펼친 신지애는 마지막날 1타를 잃어 합계 9언더파 279타로 이지영(25),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크리스티 맥퍼슨(미국)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골프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지난해 LPGA 투어에 데뷔했던 위성미는 우승 한차례가 있었지만 어이없는 실수로 우승컵을 날려버리는 일이 잦아 실망을 안겼다. 하지만 이날 위성미는 보기를 끝바로 버디로 만회했고 위기 상황을 여유있게 넘기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30일(한국시간)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끝난 캐나다 여자오픈에서 1위를 차지한 위성미가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반에 1타를 줄이며 신지애를 2~3타차로 앞서 가던 위성미는 12번홀(파4)에서 1타를 잃었지만 13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은 뒤 14번홀(파5)에서도 긴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승기를 잡았다. 15번홀(파3)에서는 그린을 놓쳤지만 그림같은 어프로치 샷을 홀에 집어 넣어 3개를 연속 버디를 기록하며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세계랭킹 7위로 도약하게 된 위성미는 "이번 대회 들어 퍼트가 잘 되지 않았는데 13번홀에서 버디를 잡고 나서 자신감을 갖고 14번홀로 갈 수 있었다. 침착과 퍼트 등 모든 것이 잘 된 하루였다"고 말했다. 위성미는 특히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차지한 데 대해 "이번 우승으로 내 자신을 믿게 된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지애는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14만2천달러를 받아 미야자토 아이(일본)를 제치고 상금랭킹 1위(140만달러)로 올라섰다.

이미 5승을 올린 미야자토는 공동 15위(4언더파 284타)에 머물렀지만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위성미 못지 않은 장타자 이지영도 13번홀에서 어프로치샷으로 이글을 잡아내며 우승을 넘봤지만 잦은 퍼트 실수 탓에 타수를 줄이지 못해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김민경(22·하나금융)이 8언더파 280타로 6위에 올랐고 박세리(33)는 마지막날 4타를 줄여 크리스티 커(미국) 등과 함께 공동 8위(6언더파 282타)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월드레저 축하비행

30일 강원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 내 의암호 수상경기장에서 동력패러글라이딩 팀이 춘천월드레저대회 축하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쿠차 짜릿한 연장 우승

## 루디샤 1주일만에 또 800m 세계新

PGA 플레이오프 1차전  
4타줄인 우즈 공동 12위

매트 쿠차(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 바클레이스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우승했다.

쿠차는 30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퍼라메스의 리저우드골프장(파71·7319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9타의 팽타를 휘둘러 마틴 레이드(스코틀랜드)와 12언더파 272타로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쿠차는 이번 우승으로 페덱스컵 포인트 2천500점을 쌓아 페덱스컵 랭킹 1위로 뛰어 오르며 가볍게 플레이오프

프 2차전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에 진출했다.

1라운드에서 공동 선두로 나섰던 폴프왕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2,3라운드의 부진으로 중위권으로 밀렸다가 마지막날 4타를 줄여 공동 12위(7언더파 277타)로 대회를 마쳤다. 우즈는 페덱스컵 순위를 65위로 끌어올려 상위 100명이 나갈 수 있는 플레이오프 2차전에 안착했다.

위정수(38)는 4언더파 280타로 공동 27위, 나상욱(27)은 2언더파 282타로 공동 36위, 양용은(38)은 1언더파 283타로 공동 47위에 올라 플레이오프 2차전에 진출했다. 최경주(40)는 첫 탈락했지만 페덱스컵 랭킹 44위로 2차전에 안착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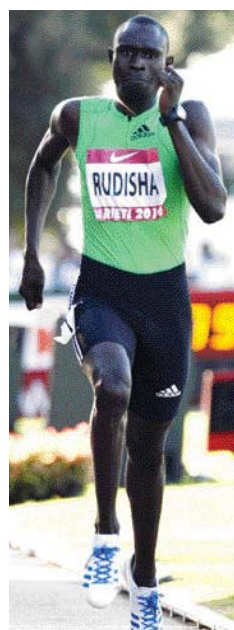
케냐의 다비드 루디샤(22)가 남자 육상 800m 세계기록을 1주일 만에 또 갈아치웠다.

루디샤는 30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에티에서 끝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월드챌린지대회 남자 800m 결승에서 1분41초01을 찍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 2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월드 챌린지대회 800m 결승에서 1분41초09를 찍어 13년 만에 이 부문 세계기록을 0.02초 앞당겼던 루디샤는 1주일 만에 다시 0.08초 단축하는 괴력을 뽐냈다.

"IAAF 대형 이벤트인 다이아몬드리그에서 뛰는 라 곤란하지만 세계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이곳에 왔다"던 루디샤는 "앞으로 1분41초대 이하로 기록을 더 끌어내리겠다"고 포효했다.

루디샤는 14차례 열린 다이아몬드리그에서 800m에 참가한 선수 중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따내고 명실공히 이 부문 최강자로 입지를 굳혔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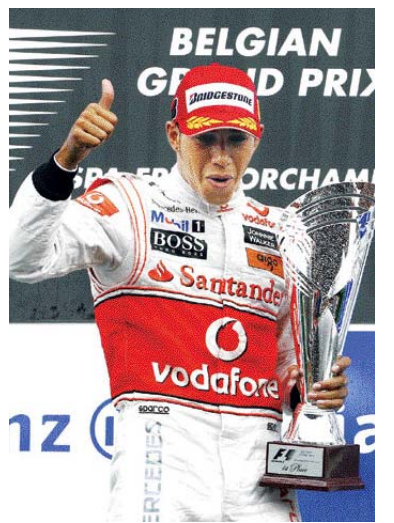
## 해밀턴, F1 벨기에 그랑프리 우승

루이스 해밀턴(영국·맥라렌·사진)이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벨기에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했다.

해밀턴은 29일(한국시간) 벨기에의 스페르 프랑코상 서킷에서 열린 2010시즌 13라운드 경주에서 7.004km의 서킷 44바퀴(총길이 308.052km)를 1시간29분04초268에 달려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

올해 터키와 캐나다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던 해밀턴은 시즌 3승째를 거두며 드라이버 부문에서도 182점이 돼 179점의 마크 웨버(호주·레드불)를 제치고 선두에 나섰다.

웨버는 이번 대회에서 해밀턴에게 1.571초 뒤진 2위로 들어와 해밀턴에게 시즌 선두 자리를 내줬다.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메르세데스)는 7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주식회사 광주시민프로축구단 팀명칭 공모

공모기간: 2010.08.31 ~ 2010.09.15  
공모대상: 광주시민프로축구단 팀명칭  
문의: 061-260-1111